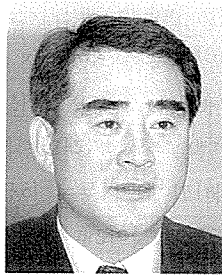


21세기 선진국 진입위해 살아있는 과학기술교육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F학점이다. 4월을 ‘과학의 달’로 정하고 과학대중화운동이나 과학문화 확산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4월 한달만 지나면 조용히 사라지고 만다. 특히 우리의 과학교육을 보면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은 과학을 재미없는 과목으로 치부해 버려 과학교육이 스스로 과학대중화를 멀게 하고 있다.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해선 이 시대에 맞는 살아있는 과학기술교육이 시급하다.

지난 4월 필자는 몸담고 있는 한국경제신문 데스크 칼럼에 ‘F학점의 과학기술정책’이란 제하의 글을 썼다. 바로 과학의 달을 맞아서다. 이 칼럼이 나간 후 많은 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허실을 정확히 꼬집어 주어 고맙다는 과학기술인들이 많았고 힘없고 빼없는 과학기술인들을 대신해 할 말을 해줬다는 격려도 많았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의 글을 자주 써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당시 그 글을 쓰게 된 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었다. 한가지는 지난해 11월 한국과학재단 주최로 언론계 과학부장들과 함께 독일, 프랑스, 영국을 둘러보면서 이들 국가의 과학기술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던 참이었다. 또 하나는 과충이 때맞춰 내



金亨根

(한국경제신문 과학정보통신부장)

놓은 과학기술인의 의식조사 결과 때문이었다.

4월 ‘과학의 달’만 떠들썩

이들 3개국 방문에서는 노벨상의 산실인 막스 플랑크연구소를 보유한 과학대국 독일, 첨단 과학기술에 도전하는 프랑스, 과학대중화에 앞장

선 영국 등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이들은 말로만 과학기술 진흥을 외치는 우리와는 사뭇 다르며 일반국민 속에 뿌리내린 과학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과학기술이 일반대중과 함께 살아 숨쉬는 것이어야 할 때 선진국 달성과 국민생활의 복지향상이 가능하다는 진리를 또한번 깨우칠 수 있었다.

칼럼을 쓰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당시 과충의 조사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다. 과학기술인 천2백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국내의 과학기술인의 의식조사 결과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과학을 배워왔고 언론사의 과학부장을 맡고 있는 필자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쇼킹했다. 조사결과 현재 과학자중에서 자기 아들이 과학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10명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딸이 과학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은 충격이었다.

물론 자식이 부모의 직업을 대물림할 의무는 없다. 부모가 과학자이지만 자식은 적성과 능력에 따라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조사결과를 대하면서 우리나라는 멀어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에 우울할 수 밖에 없었다. 전부가 아닌 일부에 국한된 것이겠지만 과학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있는 이들의 과학기술마인드가 이렇다면 과학기술입국이나 과학대중화를 아무리 외쳐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은 한마디

로 대중과 철저히 괴리되어 있다. 과학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일반국민들은 과학기술하면 어렵게만 생각한다. 대부분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과학기술, 죽어있는 과학기술이라는게 많은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과학기술에 대한 마인드이다.

과학기술처를 비롯한 정부와 과학관련단체들도 이같은 사정을 알고 있다. 그래서 매년 4월을 '과학의 달'로 정해놓고 있으며 4월21일을 '과학의 날'로 삼고 있다. 그때가 되면 과기처장관의 인터뷰가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각종 과학기술 행사도 푸짐하게 벌어진다. 올 4월도 예외가 아니어서 제1회 과학축전이 개최되고 과학기술유적지 탐방이나 청소년대상 과학강연회와 각종 학술행사가 치뤄졌다. 특히 과학기술인들은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해 무엇보다 과학기술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을 내놓고 과학대중화에 힘써야겠다고 역설했다. 또 과기처의 모 간부는 지는 태양이던 영국이 다시 경쟁력있는 선진국으로 부상한 것이 과학기술진흥 때문이라며 우리도 과학기술입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의 얘기는 다 맞는 지적이다. 또 과학대중화를 위해 애쓰는 과학기술인들의 노고가 고맙기 그지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과학대중화운동이나 과학문화확산운동을 보면 '메뚜기도 한 철'이라는 말 그대로 일년중 한차례 반짝하고 끝난다. 바로 4월 과학의 달 한달간만 언론에 제법 오르내리다 조용히 사그라진다.

「과학」은 재미없는 과목(?)

이들의 이러한 노력을 달리 말하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과학기술의 대중화가 요원하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이다. 과학기술이 얼마나 일반대중들과 동떨어져 있는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어릴 때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초등학교와 중고교를 거치면서 배우는 자연이나 과학시간은 주당 4시간만 잡아도 총 천7백여시간이나 된다.

게다가 입학시험에도 과학문제가 출제되는 탓에 공부하기 싫어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면 우리국민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 과기처나 과학관련단체가 새삼 올해를 '과학대중화 원년'으로 정해 과학문화확산운동을 어렵게 펼쳐갈 필요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과연 현실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일반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은 고사하고 과학대중화마저 요원하다는게 통설이다. 많은 지식인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과학공부에 할애하는데도 정작 졸업 후에는 과학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고 지적한다. 많은 것을 배운 것은 분명한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게 없다고 얘기한다. 게다가 지금 공부를 하고있는 학생들도 과학을 재미없는 과목으로 치부해 버린다.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같은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의 문제

점은 바로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학에 대한 논리적 추론이나 상상력을 키우면서 창의력과 자율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막무가내식으로 실험결과를 암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또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공식이 $E=MC^2$ 이라며 무조건 외우라고 가르쳐서야 사회에 나와서 써먹을 데가 있을리 없다.

우리 과학교육이 스스로 과학대중화를 멀게하고 과학기술을 이 분야 전문가에게만 떠넘기는 우를 자행해 온 셈이다.

과학기술교육 일대 전환을

미국, 일본, EU 등은 현재 21세기를 앞두고 과학기술진흥을 부르짖고 있다. 이들은 국력을 총동원해 과학기술 대중화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뒷받침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 21세기 세계 주도국가로 그 명맥을 이어나가려고 애쓰고 있다. 우리도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다. 대중과 괴리되어 있는 죽은 과학기술로는 21세기 선진국 진입은 한낱 무지개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과학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일대 전환을 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을 과학자들의 몫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활 속에 자리잡은 일반대중의 것으로 바꿔나가야 할 시점이다. 정부 과학관련단체 과학기술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국민들도 살아있는 과학기술을 위해 더많은 애정을 갖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⑤7